

종교교육학연구 제19권. pp.175~195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4. 12

한국 가톨릭에 대한 일반인의 종교적 인식에 대한 연구

朴 日 榮
(가톨릭대학교)

요약

한국 가톨릭에 대한 일반인의 종교적 인식을 다루는 본 연구는 가톨릭교회가 한국에서 과연 한국인의 종교가 되었는지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러한 연구를 추구하는 배경에는 우선 가톨릭교회가 이제 진정한 한국인의 종교로 자리 매김하고, 그러한 위상을 바탕으로 다(多) 종교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의 사회가 상호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삼아, 건설적인 공존과 협력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내용, 범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가톨릭에 대하여 한국인들이 어떤 종교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을 우선적인 연구 내용으로 한다. 연구 범위는 천주교 신자와 비신자를 모두 포함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한국 가톨릭교회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심층적 관찰의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한다.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주제와 관련된 기왕의 전국 규모 조사 자료들을 활용한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 가톨릭의 과거를 반성하고 현재를 평가하며 미래를 전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기대된다. 관련 학계에는 가톨릭의 다양한 면모들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단초를 제공해 줄 것이다. 교회 내적으로는 선교와 사목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국가적으로는 다종교 공존의 한국 사회문화 전반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가톨릭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

핵심주제어: 가톨릭의 현실, 일반국민의 평가, 종교적 인식, 의식조사,
종교교육의 사명.

I. 서론: 한국 가톨릭이 처한 현실

한국 가톨릭에 대한 일반인의 종교적 인식을 다루는 본 연구는 가톨릭교회가 한국에서 과연 한국인의 종교가 되었는지를 천주교 신자와 비신자를 모두 포함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내부적으로는 가톨릭이 이미 한국의 종교가 되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 대세이다. 그렇지만 과연 사실이 그러한지, 또 어느 정도나 한국화되어 있는지를 보통 사람들의 시각으로도 확인하여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필요가 제기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내용, 범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가톨릭에 대하여 한국인들이 어떤 종교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을 우선적인 연구 내용으로 한다. 연구 범위는 천주교 신자와 비신자를 모두 포함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한국 가톨릭교회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심층적 관찰의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한다.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주제와 관련된 기왕의 전국 규모 조사 자료들을 활용한다.³⁵⁾

이러한 연구를 추구하는 배경에는 우선 가톨릭교회가 이제 진정한 한국인의 종교로 자리 매김하고, 그러한 위상을 바탕으로 다(多)종교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의 사회와 종교들이 상호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삼아, 건설적인 공존과 협력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 가톨릭의 과거를 반성하고 현재를 평가하며 미래를 전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기대된다. 관련 학계에는 가톨릭의 다양한 면모들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단초를 제공해 줄 것이다. 교회 내적으로는 선교와 사목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국가적으로는 다종교 공존의 한국 사회문화 전반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가톨릭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

* 본 연구는 2004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35) 박일영 외, 《천주교와 한국 근현대의 사회문화적 변동 02. 근현대 100년 속의 가톨릭교회에 대한 일반국민 의식조사 보고서》, 가톨릭출판사, 2004b. 그밖에도 최근 실시된 종교 관련 통계조사자료들을 참조하기로 한다. 대표적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박무익 외,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한국갤럽, 1984/1989/1997; 한미준/한국갤럽, 《한국 개신교인의 교회활동 및 신앙 의식》, 두란노, 1999. 통계청, 《인구 주택 총 조사 보고서》, 통계청, 2001/2004; 한신대학교 학술원 신학연구소, 《한국 개신교와 한국 근현대의 사회-문화적 변동》, 한울 아카데미, 2003; 박일영 외, 《한국 천주교와 한국 근현대의 사회-문화적 변동 01. 전문가 의견조사보고서》, 한울 아카데미, 2004a.

<표 1> 최근 한국의 종교인구 분포 추이(단위 %)

	갤럽 1984년	센서스 1985년	갤럽 1989년	사회통계 1991년	사회통계 1994년	센서스 1995년	갤럽 1997년	한미준 1998년	사회통계 1999년	사회통계 2003
무종교인	56.2	57.4	51.0	46.0	50.1	49.3	53.1	47.2	46.4	46.1
개신교	17.2	16.1	19.2	18.6	18.2	19.7	20.3	20.7	18.6	19.9
불교	18.8	19.9	20.9	27.6	24.4	23.2	18.3	23.5	26.3	25.3
천주교	5.7	4.6	7.0	5.7	5.9	6.6	7.4	7.5	7	7.4
기타	2.6	1.9	1.9	2.1	1.5	1.3	0.9	1.1	1.8	1.3
종교인 합계	43.8	42.6	49.0	54.0	49.9	50.7	46.9	52.8	53.6	53.9

출처: 박무익 외, 《韓國人의 宗教와 宗教意識》, 한국 갤럽, 1984/1989/1998; 한미준/한국갤럽, 《한국 개신교인의 교회활동과 신앙의식》, 두란노, 1999; 통계청, “1999 인구/가구/시도별 종교인구”, 통계청, 2001; 통계청, “2003 종교인구”, 통계청, 2004.2.

이미 다양한 종교와 종파가 쟁명하고 있는 한국의 다종교 상황은 21세기에 들어서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³⁶⁾ 특히 일방적인 일부 종파들의 이른바 전투적인 “선교”는 선교의 본래 의미를 실천하기보다는, 한국 사회에서 종교 간의 평화 공존을 위협하는 일종의 반(反)선교를 하는 셈이다.³⁷⁾ 이러한 반선교적인 행태는 전 세계적인 사회의 흐름과도 동떨어져 있다. 인류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제 상호대립과 불신의 분위기를 넘어서서 화해와 교류를 추구하는 분위기로 전환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종교문화간에 빈번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과거의 독선적 태도를 반성하고 있다. 그리하여 상호관심사의 교환으로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³⁸⁾ 예를 들어, 부자 나라들에서는 사람들이 마치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듯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느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가 종교들에게 문제가 된다.

반면에,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없는 비참한 곳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가 종교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³⁹⁾

36) 김희성, 《포스트모던 사회와 열린 종교》, 민음사, 1994, 27쪽 참조.

37) 리카르트 프리드리, 박일영 역, 《현대의 선교. 선교인가 반(反)선교인가》, 신학선서 10, 성바오로출판사, 1989, 162-165쪽.

38) 교황 바오로 6세, 이종홍 역, 《현대의 복음선교》(Evangelii Nuntiandi),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5, 제48항 참조.

독일의 가톨릭 신학자인 메츠(J. B. Metz)는 이러한 세계적인 현상을 일컬어 서구 중심주의(Euro-centrism)에서 다중심주의(多中心主義, Poly-centrism)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진단하였다.⁴⁰⁾ 일례로, 가톨릭 신자를 구성하는 백인의 비율이 1975년을 기준으로 전체 구성 비율에서 5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서양 중심의 가톨릭교회가 이제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소위 제3 세계로 중심 이동이 되었다는 의미이다.⁴¹⁾

한국의 가톨릭 신자 수는 1784년에 공식적으로 첫 신앙인이 생겨난 이후, 190여 년 만인 1975년에 100만이 넘어섰다. 2004년 현재는 약 450만 명의 신도를 두고 있다.⁴²⁾ 이렇게 급속한 교세 성장은 한국의 가톨릭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 약간 그 기세가 수그러드는 경향이 없지는 않으나, 개신교, 불교, 민족종교들도 마찬가지로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현대 한국에서 다양한 종교들이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전환기의 특징을 들 수 있다. 천년기가 바뀐다는 매우 희귀한 전환의 시기에 직면해서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가지게 된다. 그만큼 불안하고 위태롭다고 느끼는 것이다.

둘째, 사회를 주도하는 뚜렷한 사상의 부재이다. 고대의 토착종교, 중세의 불교, 근대의 유교와 같이 민족을 이끌어 가는 정신적 지주가 뚜렷이 부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셋째, 불안한 나날의 삶도 한 원인이 된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남북분단의 긴장, 얼마 전 겪은 IMF 구제금융 사태 등으로 대표되는 정치-경제적 불안이 좋은 예가 된다.

39) 리카르트 프리드리, 앞의 책, 33-36쪽.

40) 박일영, 〈종교 간의 갈등과 대화. 무속과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종교신학연구》 제2호, 1989, 99쪽.

41) *Evangelie et Mission*, No. 39, 1983, p. 683.

42) 《한국 천주교 총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근간) 참조.

<표 2> 한국인이 종교를 갖는 이유(단위 %)

구분		종교인의 종교 보유 이유						합계	
		구원의 영생을 위해	마음의 평안을 위해	건강, 재 복, 우 운을 위해	진심한 신앙을 위해	신자의 친목을 위해	정평 의화 세 구 현 을 위 해	행 %	유효 수
		행 %	행 %	행 %	행 %	행 %	행 %		
종교 보유자의 종교	개신교	58.1	30.6	3.8	7.0	.0	.5	100.0	N=186
	천주교	17.2	50.5	4.0	25.3	.0	3.0	100.0	N=99
	불교	4.3	67.0	6.9	20.7	.5	.5	100.0	N=188
	원불교	.0	.0	.0	100.0	.0	.0	100.0	N=1
	유교	.0	25.0	.0	75.0	.0	.0	100.0	N=4
	천도교	.0	.0	.0	.0	.0	100.0	100.0	N=1
	기타	.0	50.0	.0	33.3	.0	16.7	100.0	N=6
성별	남성	25.6	50.7	4.6	16.4	.5	2.3	100.0	N=219
	여성	29.0	47.2	5.6	17.5	.0	.7	100.0	N=269

출처: 박일영 외, 《한국 천주교와 한국 근·현대의 사회-문화적 변동 02. 근·현대 100년 속의 가톨릭교회에 대한 일반국민 의식조사보고서》, 가톨릭출판사, 2004b, 110쪽.

한국처럼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다종교 상황에서 가톨릭교회가 이웃종교에 대하여 지녀야 할 자세는 어떠할까? 현대 세계에 대한 전 세계 가톨릭교회의 적응을 주제로 개최되었던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65)가 반포한 문헌들에서 그 윤곽을 그려보기로 하겠다. 먼저,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1965.12.7)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핵심으로 들어있다. 첫째, 종교문제에 관한 사회적, 개인적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고 둘째, 종교의 자유는 계시의 가르침에 근거하며 셋째, 교회의 사명은 ‘선교’라는 것이다.⁴³⁾

그런데 여기에서 교회 안팎으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선교’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선교의 일차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는 사실 신자 수 늘리기라든가, 교회의 세력 확장이 아니다. 선교란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보여진 “인간에게로 향하는 하느님의 사랑”(디도 3,4)을 나도 본받아 실천하는 일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나서서 그리스도인 예수(Jesus der Christus)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일이다.

43)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 인간 존엄성〉,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개정판: 2002, 1217-1253쪽.

다음으로, <비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선언. 우리 시대> (1965.10.28)의 내용을 보겠다. 이 문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한마디로, 그리스도교 이외의 다양한 종교들도 인류가 지닌 공통의 문제, “인생의 숨은 수수께끼들에 해답”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논의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양심의 명령에 충실하다면 반드시 구원될 것이다. 따라서 가톨릭교회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해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회 밖의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대화를 하는 것이 중대한 의무이다”라는 것이다.⁴⁴⁾

그런데 이제까지 특히 서양에서 발전해온 그리스도교의 전통적인 타종교 이해는, 유감스럽게도, 대부분 적대적이었다. 인류의 고통에 동참하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공통의 문제를 함께 풀어간다는 자세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⁴⁵⁾ 반면에, 한국 사람들의 종교 사상은 어느 한 종교만 배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포용적이다. 그것은 사회조사 결과들⁴⁶⁾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는 한 사람이 여러 종교를 중복해서 받아들이기도 하다 보니, 인구 조사를 해보면 전체 인구보다 종교 인구가 더 많은 경우도 발생한다.⁴⁷⁾

그렇게 보면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은 절대성의척도가 아니다. 그것은 진리가 다양하게 드러나는 모습이라 해야 옳다. 나의 종교라든가 나의 신앙을 올바로 알아들으려면, 이웃의 종교, 타인의 신앙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⁴⁸⁾ 상대방을 만나려는 자세, 상대방에게서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비교언어학자이면서 현대 종교학의 창시자인 막스 뮐러(Max Müller)는 이런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나만을 아는 것은 아무 것도 모르는 것이다”(He who knows one, knows none).⁴⁹⁾

고고학에서는 원시유물을 발굴하고 조사할 때에, 장례식 같은 종교의례를 거행한 흔적이 있어야만 온전한 인간의 유물로 인정한다. 그렇게 볼 때에 종교 의식은 인간 생활 전반에 걸쳐 정신적인 바탕을 이룬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교 현상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문화 현상이 아니라, 인간이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심의 발로라고 말할 수도 있다. 종교적 인간(homo religiosus)이라는 말은 그래서 “인간은 종교적이다”(Homo est religiosus)라는 뜻과 다르지 않다.⁵⁰⁾

44) 위의 책, 1201-1216쪽.

45) 박일영, 앞의 글(1989), 122-124쪽.

46) 각주 1번에 거론된 일련의 종교 관련 사회조사들을 참조.

47) 통계청, 앞의 책(2001/2004) 참조.

48) 위의 책, 67-74쪽 참조.

49) F. 막스 뮐러, 김구산 역, 《종교학입문》, 동문선, 1995, 34쪽.

50) 파넬베르크, 볼프하르트, 박일영 역, 《인간학》, III, 왜관: 분도출판사, 1996, 619쪽.

이제 자신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독선적인 태도는 21세기를 살아가야 할 사람들은 너와 나를 막론하고 버려야 한다. 그것은 기껏해야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자기들에게만 유효한 소리가 된다. 그 동안 그런 개방적인 태도를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종교 간의 분쟁이나 전쟁은 인류 역사에 가장 극악한 불행의 씨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⁵¹⁾ 왜냐하면 종교 때문에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자기는 틀린 것이 전혀 없다고, 진리를 수호할 뿐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철저한 ‘확신범’이기 때문이다.

II. 사회조사에 나타난 한국인 일반의 종교문화적 배경

고대의 샤머니즘적(shamanistic) 신앙 형태로부터 중세의 불교 그리고 근세의 유교가 한민족의 종교성을 대변하였다. 현대에 이르러 점점 더 그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는 그리스도교, 나아가서는 민족종교들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종교사는 다양한 종교들의 부침(浮沈)과 융섭(融攝)을 보여준다.⁵²⁾ 이를 통하여 각 종교들은 한국인의 전통 기반 속에 저마다 뿌리를 내리고 가치를 뽐기 위한 시도를 한다. 그러한 시도는 오늘날 단순한 겉모습의 변모[assimilation] 보다는 문화 전반에 걸친 더욱 심층적인 동화(inculturation)에 그 비중이 주어지고 있다.⁵³⁾

한국의 종교들은 한국 문화의 중요한 핵심으로서 “내면적이고 심리적, 인격적인 움직임과 성품 전체”⁵⁴⁾라고 말할 수 있는 한국인의 종교성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인생의 제반 문제에 대하여 마지막 해답을 찾고자 하는 성품인 한국인의 종교성은 고정불변으로 늘 같은 모습은 아니다. 한국인의 종교성은 한국 종교사 전체를 통하여 여러 다른 길을 통하여 받아들여지고 또 바뀌면서 상호작용을 거듭하여 형성되어온 것이다.⁵⁵⁾

이 세상 너머의 것에 대한 경험이라고 일컬어지는 종교경험은 하나의 문화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갖게 되는 종교의식을 결정한다. 현대 한국인의 경우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종교형태 외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그 종교성 내지는 종교의식

51) 한국종교연구회, 《종교 다시 읽기》, 청년사, 1999, 11쪽.

52) 제임스 헌틀리 그레이슨, 강돈구 역, 《한국종교사》, 민족사, 1989 참조.

53) 박일영, 《한국 무교의 이해》, 종교학총서 9, 왜관: 분도출판사, 1999, 22-30쪽; 박일영, 《한국 무교와 그리스도교》, 아시아신학총서 10, 왜관: 분도출판사, 2003a, 21-58쪽 참조.

54) 류동식, 〈한국인의 종교심성과 기독교 이해〉,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목》 93호, 1984, 43쪽.

55) 정진홍, 〈종교문화의 만남: 한국의 종교문화와 그리스도교 문화와의 만남을 서술하기 위한 시론〉, 한국신학연구소, 《신학사상》, 1986/봄, 5쪽.

을 드러내기도 한다.⁵⁶⁾ 그래서 오늘날 종교학자들은 종교문화와 종교의식의 관계를 논하면서 현대인은 “종교 없는 종교성”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⁵⁷⁾

<표 3> 선호 종교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분석(단위 %)

구 분		종교 활동 재개 의사자의 선호 종교				합계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행 %	유효수
		행 %	행 %	행 %	행 %		
성별 분류	남성	41.7	37.5	16.7	4.2	100.0	N=24
	여성	25.0	58.3	16.7	.0	100.0	N=36
연령 분포 재분류	29세 이하	37.5	50.0	12.5	.0	100.0	N=8
	30-39세	36.8	42.1	15.8	5.3	100.0	N=19
	40-49세	30.0	50.0	20.0	.0	100.0	N=20
	50세 이상	25.0	58.3	16.7	.0	100.0	N=12
권역별 분류	수도권	40.0	40.0	17.1	2.9	100.0	N=35
	중부권	33.3	50.0	16.7	.0	100.0	N=6
	호남권	14.3	85.7	.0	.0	100.0	N=7
	영남권	16.7	58.3	25.0	.0	100.0	N=12
도시화 정도별 분류	대도시	36.7	46.7	16.7	.0	100.0	N=30
	중소도시	36.4	45.5	18.2	.0	100.0	N=22
	군/읍/면	.0	75.0	12.5	12.5	100.0	N=8
학력 분포 재분류	중졸 이하	50.0	16.7	33.3	.0	100.0	N=6
	고졸	26.7	63.3	10.0	.0	100.0	N=30
	대졸 이상	36.4	40.9	18.2	4.5	100.0	N=22
월 평균 가구 소득별 재분류	200만원 이하	42.3	50.0	7.7	.0	100.0	N=26
	201-300만원	29.4	41.2	23.5	5.9	100.0	N=17
	300만원 이상	21.4	64.3	14.3	.0	100.0	N=14
과거 종교 경험자의 보유 종교	개신교	56.7	30.0	13.3		100.0	N=30
	천주교	7.1	85.7	7.1		100.0	N=14
	불교		54.5	45.5		100.0	N=11
	원불교				100.0	100.0	N=1
	기타	33.3	66.7			100.0	N=3

출처: 박일영 외, 《한국 천주교와 한국 근·현대의 사회-문화적 변동 02. 근·현대 100년속의 가톨릭교회에 대한 일반국민 의식조사보고서》, 가톨릭출판사, 2004b, 117쪽.

56) 차옥승, 《한국인의 종교경험. 무교》, 서광사, 1997; 같은 저자, 《한국인의 종교경험. 천도교·대종교》, 서광사, 2000; 같은 저자, 《한국인의 종교경험. 원불교·증산교》, 서광사, 2003 참조.

57) 정진홍, 《종교문화의 인식과 해석》,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333-338쪽 참조.

다른 한편 한국인의 종교의식과 종교문화가 여러 종교의 혼합만은 아닐 것이다. 겉 모습에 나타난 다양성 속에 숨어있는 보다 본질적인 요소들을 찾아내야만 한국인 공통의 종교의식과 고유한 종교문화가 그 윤곽이나마 그려질 것이다. 종교 간의 만남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는 단순한 뒤섞임이 아니라, 항상 일정한 핵심과 “중심 교리”(orienting force)⁵⁸⁾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한국 같은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인구조사를 할 때에 늘 겪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1984년 한국 갤럽이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을 처음 조사할 때에 참여하였던 어느 종교학자는 한국의 종교인들을 그리스도인과 같은 “경성종교 구성원”(hard religious membership)과 불자 같은 “연성종교 구성원”(soft religious membership)으로 나누어 파악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⁵⁹⁾

오늘날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특정종교의 틀에 얽매이기는 싫어한다. 하지만 종교적인 성향만큼은 그 이전 어느 때나 다름없이 또는 더 절실하고 뚜렷하다는 의미이다. 이미 여러 번의 사회조사들에서 확인되는 대로, 불교에 대한 호감이 증대하는가 하면 가톨릭에서는 신자로서의 의무 수행을 점차 등한시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앞의 <표 1>에서 비교해 보았듯이, 한국인은 현세적인 종교관을 갖고 있다. 1999년에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주택 총 조사》⁶⁰⁾를 통해서 보았을 때에, 55.4%의 한국인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 저승에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있다고 믿고 있다. 또 73.7%의 한국인은 미래의 행복이 자신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이 조사에 따르면, 지금 한국의 종교계는 기로에 서 있다고 보인다. 72.2%의 한국인은 대부분의 종교단체가 종교 본래의 뜻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 79.6%는 대부분의 종교단체는 교세 확장에 관심이 있다고 여긴다. 78.1%의 한국인은 종교 단체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종교의 본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어느 일간지에 발표된 조사 내용을 보면, 한국의 종교단체들이 이웃 돕기에 사용하는 복지 예산은 겨우 총재정의 1.64 % 뿐이라고 한다.⁶¹⁾ 한국의 종교들이 좀 더 헌신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이 사회에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사회적 ‘압

58) 최준식, 「증산의 가르침에 나타나는 혼합주의의 구조」, 서강대학교, 《종교신학연구》 제2호, 1989, 32쪽.

59) 윤이흠, 《한국종교연구》, 제2권, 집문당, 1989, 76-78쪽.

60) 통계청, 앞의 책(2001) 참조.

61) 조선일보, 1994년 7월 24일자.

력단체'가 되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삶 안에서 실천하는 종교를 이룩하기 위한 분발이 요청되는 시점에 한국의 종교들은 지금 서 있다. 그것은 최근의 조사에서 한국 가톨릭이 이 시대 역점을 두고 시행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된 내용들과도 일치한다.

〈표 4〉 한국 천주교가 역점을 두어야 할 최우선 과제

구분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종교간 대화	24	12.3	12.4
종교간 연대 및 협력활동 (예, 환경 및 통일운동)	93	47.7	47.9
한국 종교문화의 이해	22	11.3	11.3
외래요소탈피/한국화노력	22	11.3	11.3
종교를 초월한 공동의제설정	31	15.9	16.0
기타	2	1.0	1.0
무응답	1	.5	
합계	195	100.0	100.0

출처: 박일영 외, 《한국 천주교와 한국 근·현대의 사회-문화적 변동 01. 전문가 의견조사보고서》, 한울 아카데미, 2004a, 84쪽.

한국갤럽이 1997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⁶²⁾, 66.8%의 한국인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가장 큰 이유로 “마음의 평안”을 꼽는다. 그 다음으로 “죽은 다음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12%), “복을 받기 위해서”(12 %),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6.9%) 순이다.

한국인의 41.8%는 이 세상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믿는다. 42.2%의 한국인은 종교 유무에 관계없이 극락/천당이 있다고 생각한다. 33.2%의 한국인은 극락/천당이 없다고 믿는다. 24.6%는 모르겠다고 한다.

한국인의 82.4%는 종교 단체에 얽매이기보다는 본인이 옳다고 생각되는 종교적 믿음을 실천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또 73.7%는 앞으로의 행복은 오직 나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한국인의 80%는 여러 종교의 교리는 얼핏 생각하면 서로 틀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같거나 비슷한 진리라고 말한다.

59.3%의 한국인은 과거와 비교해 우리 사회에서 종교가 끼치는 영향력이 더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보다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7%이다. 종교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39.6%와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62) 박무익 외,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한국갤럽, 1998 참조.

의 45.3%가 그러한 현상은 좋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가톨릭신자의 종교의식과 신앙생활》⁶³⁾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천주교 신자들은 다른 종교 중 불교에 대해 가장 많은 호감(64.3%)을 갖고 있다. 그 다음은 유교(41%), 개신교(28.2%) 등의 순이다. 호감이 가지 않는 종교로는 무속(89.9%), 천도교(82.5%), 개신교(71.8%) 등이 꼽혔다. 천주교 신자들은 다른 종교에 의한 구원 가능성에 대해 34.5%가 “종교와 상관없이 착하게 사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천주교 신자의 86.5%는 제사를 지내고 있으며, 이들 중 59.4%가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낸다.

III. 사회조사에 나타난 한국인의 가톨릭에 대한 종교적 인식

이하에 제시하는 조사 내용과 자료들은 2003년 말에서 2004년 초에 걸쳐서 근현대 한국가톨릭연구단이 제2차로 시행한 사회조사인 가톨릭교회에 대한 ‘일반국민 의식 조사’에 의거하고 있다.⁶⁴⁾

<표 5> 천주교에 대한 한국인의 인상(단위 %)

구분		천주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합계	
		성모 마리아	사회 정의 활동	교황	천주교 예식	신부,수 사,수녀	사회복지/ 사회봉사	신자 세례명	기타	행 %	유효수
		행 %	행 %	행 %	행 %	행 %	행 %	행 %	행 %		
종교 보유자 의 현재 종교	개신교	52.2	3.2	10.8	8.1	20.4	2.7	1.6	1.1	100.0	N=186
	천주교	33.3	3.0	5.1	23.2	29.3	4.0	1.0	1.0	100.0	N=99
	불교	47.6	1.6	12.3	7.0	21.9	5.9	2.7	1.1	100.0	N=187
	원불교	.0	.0	.0	.0	100.0	.0	.0	.0	100.0	N=1
	유교	20.0	20.0	20.0	20.0	20.0	.0	.0	.0	100.0	N=5
	천도교	.0	.0	100.0	.0	.0	.0	.0	.0	100.0	N=1
	기타	50.0	.0	16.7	16.7	16.7	.0	.0	.0	100.0	N=6

‘천주교회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연상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역시 ‘성모 마리아’라고 응답한 이들이 44.2%에 이르고 있어,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를 믿는 곳”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아직도 넓게 확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가톨릭 성직자, 수도자에 대한 이미지도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63) 강인철/박문수/박영대, 《가톨릭신자의 종교의식과 신앙생활》, 가톨릭신문사, 2002 참조.

64) 박일영 외, 앞의 책(2004b)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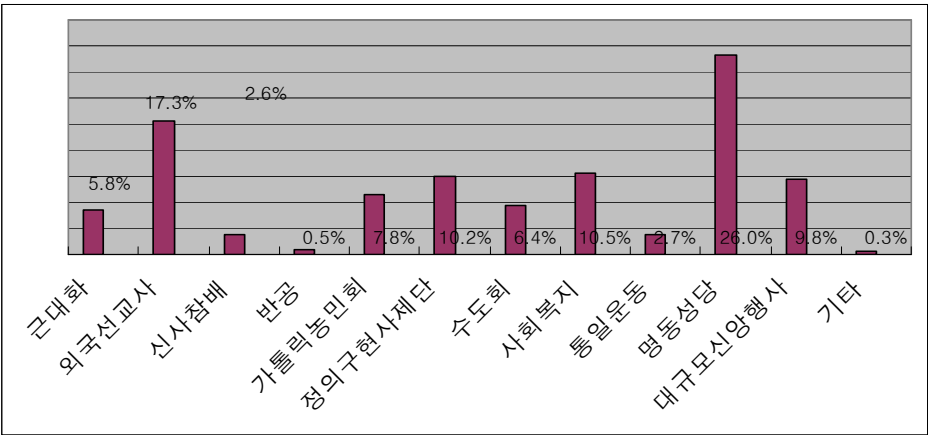
이 항목에 대한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인식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종교별로는 다소 틀리다. 즉 개신교인과 불교인은 성모 마리아와 교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천주교 신자 스스로는 천주교 예식과 성직자, 수도자가 인상적이라고 응답한 이들이 많았다.

<표 6> 한국 문화와 천주교의 조화 정도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그렇지않다	16	1.6	1.6	1.6
	별로 그렇지않다	144	14.4	14.5	16.1
	그저 그렇다	375	37.5	37.7	53.8
	약간 그렇다	377	37.7	37.9	91.8
	매우 그렇다	82	8.2	8.2	100.0
	합 계	994	99.4	100.0	
결측	9	6	.6		
합 계		1000	100.0		

천주교가 한국 문화와 어느 정도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는 중간적 평가가 37.7%, ‘약간 그렇다’(37.9%)와 ‘매우 그렇다’(8.2%)는 긍정적 평가가 45.9%에 이르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7> 천주교 하면 연상되는 것



가톨릭교회에서 실제로 행해졌던 활동이나 그 주체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것을 묻은 결과, ‘명동성당’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1970-80년대 전개되었던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라는 이미지와 함께, 중요 시기마다 언론에 자주 노출된 효과의 여파로 판단된다.

<표 8> 천주교의 역점 사항(단위 %)

구분		현재 천주교의 역점 사항								합계	
		성당·종교 세화·확장	사회복지	인권·정의·평화 운동	종교행사·기도· 수행	신자간·친교· 공동체	해외 선교	토착화 /한국화	기타	행 %	유효수
		행 %	행 %	행 %	행 %	행 %	행 %	행 %	행 %		
현재 종교 유무	있다	9.2	24.2	28.9	13.8	19.8	.6	1.6	1.8	100.0	N=491
	없다	10.4	19.	19.6	19.0	25.4	.4	2.2	3.1	100.0	N=489
종교보 유자의 현재종 교	개신교	9.2	16.8	32.4	16.2	18.9	1.1	3.2	2.2	100.0	N=185
	천주교	17.2	17.2	30.3	3.0	32.3	.0	.0	.0	100.0	N=99
	불교	4.9	36.2	26.5	15.7	13.0	.5	1.1	2.2	100.0	N=185
	원불교	.0	.0	.0	100.0	.0	.0	.0	.0	100.0	N=1
	유교	.0	40.0	40.0	.0	20.0	.0	.0	.0	100.0	N=5
	천도교	.0	100.0	.0	.0	.0	.0	.0	.0	100.0	N=1
	기타	.0	.0	16.7	33.3	33.3	.0	.0	16.7	100.0	N=6

현재 한국천주교회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 분야로는 다른 문항에 비해서 비교적 다양한 분포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권·정의·평화 운동, 신자들의 친교, 공동체 강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 종교 행사나 기도, 수행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위의 4가지 항목을 사회적인 활동(인권·정의·평화 운동,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과 교회 내적인 활동(신자들의 친교·공동체 강화, 종교 행사나 기도·수행)으로 구분하여 보면 각각의 비율이 46.3%와 39.0%에 이른다. 천주교가 사회적인 활동에 치중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이들의 비율이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9> 한국 천주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단위 %)

구분		현재 종교 유무		합계	종교인의 종교분포				합계
		있다	없다		개신교	천주교	불교	기타	
윤리 면에서의 영향이 크다	그렇다	60.3	54.6	57.5	56.7	72.9	58.2	61.5	60.6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	73.6	67.1	70.4	63.5	91.8	74.6	76.9	73.8
천주교인이 정직하다	그렇다	48.5	45.8	47.1	42.9	59.4	48.9	46.2	48.6
사회봉사를 많이 한다	그렇다	71.3	61.2	66.3	68.1	83.5	70.3	53.8	71.6
현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	51.4	46.9	49.2	47.5	78.4	43.3	25.0	51.7
가난한 사람이 편히 다닐 수 있다	그렇다	55.2	53.8	54.5	49.5	69.1	55.4	46.2	55.6
정신적 문제해결에 도움을 준다	그렇다	67.7	62.5	65.1	66.1	80.4	64.1	53.8	67.9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 선다	그렇다	58.2	55.8	57.0	58.3	71.1	54.6	30.8	58.7
성당/시설을 지역사회를 위해 개방하고 있다	그렇다	36.3	37.4	36.9	31.1	37.1	41.1	46.2	36.6
적극적으로 선교한다	그렇다	17.9	20.1	19.0	13.0	12.4	24.7	38.5	18.1

한국 천주교에 대한 긍정적 접근의 항목에 대한 태도를 하나의 표로 요약하면 위와 같다. 우선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분석해보면, 종교인의 경우 비종교인보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다만 ‘천주교는 가난한 사람들이 편히 다닐 수 있다’와 ‘천주교가 성당/시설을 지역 사회를 위해 개방하고 있다’, ‘천주교는 타종교에 비해 적극적으로 선교한다’ 는 항목에서만 두 집단이 비슷한 동의 정도를 보이고 있다.

<표 10> 한국 천주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단위 %)

구분		현재 종교 유무		합계	종교인의 종교분포				합계
		있다	없다		개신교	천주교	불교	기타	
반공이념 전파에 앞장서 왔다	그렇다	19.5	22.0	20.7	14.4	22.1	23.4	30.8	19.8
물신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	13.8	15.5	14.6	11.8	19.6	13.4	7.7	13.9
권위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	28.5	30.4	29.4	28.3	39.2	22.0	30.8	28.2
형식주의에 빠져 있다	그렇다	26.2	24.5	25.4	32.6	33.0	17.2	23.1	26.5
타종교, 사상에 배타성을 보인다	그렇다	17.4	16.7	17.0	19.9	17.3	14.7	16.7	17.3
유럽 문화에 친화적 태도를 보인다	그렇다	42.9	37.7%	40.4	45.5	44.9	38.9	38.5	42.7

부정적 접근 항목에 대한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태도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긍정적 접근의 대부분 항목에서 높은 동의 정도를 보였던 천주교 신자들이 이번 항목에서는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천주교 신자들은 ‘천주교 성직자들의 품위와 자질이 부족하다’(29.5%), ‘믿지 않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는다’(12.6%), ‘금전 문제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11.5%), ‘교리들을 엄격하게 강조한다’(53.6%), ‘천주교인이 비천주교인보다 이기적이다’(24.0%)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자신의 종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IV. 결론: 한국 가톨릭의 종교적 과제

요즈음의 한국 종교계를 살펴보면, 여러 종교들이 비교적 흥성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런데 이즈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를 열심히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물질문명이 성하면 종교는 오히려 별 힘을 못 쓴다고 주장되어 왔고,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사실이 그렇기도 하다.

물론 일부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인류가 더욱 편하게 살 수 있게 되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종교의 역할이 커진다고 말하기도 한다. 인간 정신이 갖는 속성상 몸과 마음에 여유가 생길수록 정신적 가치를 찾게 되고, 그것을 종교가 떠맡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우리는 지난 한 세대에 걸쳐 경제제일주의를 내세운 정부 주도의 급속한 산업화를 경험하였다. 그 와중에서 가치질서의 혼란과 함께 수많은 구조적인 모순점들을 아울러 겪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므로 정신적인 지주(支柱)를 상실한 상태에서 빚어진 공허감을 종교에서 찾고자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동기는 또 저마다 다른 것이었다고 보인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젊은 사람들은 사회적 모순에 대한 반성과 정치상황의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들에 항거하면서 종교의 사회참여에 호응하고 호감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나이든 사람들은 모순된 사회로부터의 도피처를 종교에서 찾았다고 진단할 수 있다. 하기는 현대를 종교백화점의 시대라고 하듯이, 현대인들은 저마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고르듯이 종교가 진열한(?) 각종 ‘상품(item)’들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취사선택하는 성향을 가진다.⁶⁵⁾

65) Peter Berger, *Sacred Canopy*, 이양하 역, 《종교와 사회》, 종로서적, 1980 참조.

‘2004년도의 일반국민 의식조사’⁶⁶⁾에서도 나타나듯이, 종교를 선택하여 가치관을 재정립해 가는 과정에서도 저마다 다른 취향이 드러난다. 전통문화에 심취하는 이들은 주로 불교 계통으로 나아가는가 하면, 서구문화를 좋아하는 이들은 그리스도교를 찾는다. 전통문화를 앞세우면서도 외래적인 요소들을 가미하기로는, 신종교들이 그 구미를 맞춰준다.

그런데 종교들이 제각기 이익집단화 하여 숫자를 늘리고 힘을 비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나아갈 때, 즉 일종의 종교 패권주의를 실천한다고 할 때, 그 사회의 앞날은 암담할 수밖에 없다. 스리랑카, 레바논, 북 아일랜드, 보스니아, 알제리, 콩고, 터키 등 세계 곳곳의 종교분쟁 지역들이 그 끔찍한 인과를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⁶⁷⁾ 그러한 행태의 선교야말로 선교의 역기능이요 역(逆)선교, 반(反)선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흥성하는 한국의 종교들이 혹시나 속내 용상으로는 구원대상인 인간과 사회에 공헌하는 정당한 선교, 포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反)포교, 역(逆)선교의 모습이나 경향은 없는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궤도를 이탈한 종교들이 제 모습을 회복하고 자기 정체성과 사회적 기능을 되찾기 위해서는,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일에 모든 종교들이 좀더 헌신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자세야말로 종교들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다’는 종교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그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마음씨인 영성을 심화해 가는 지름길이다. 그렇다면 민주화다, 환경 보존이다, 통일운동이다 하는 사회참여의 명분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사회참여가 교세를 과시한다든가 교세를 확장하는 효과적인 방편으로 여겨져 온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해야 한다. 이미 전문가들(2003년 조사)이나 일반인들(2004년 조사)을 막론하고 그리스도교의 사회참여에 그러한 혐의를 짊어 두고 있다.

21세기는 ‘자연중심의 세계관’이 점차 득세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서 종교의 사역화(私域化)와 탈세속화 현상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띠는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탈세속화’ 현상으로 사람들이 영성과 종교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종교에 다시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이번 사회조사에서 완만하게나마 종교인구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둘째, ‘자연 중심의 세계관’이 팽배하게 되면서 그리스도교보다는 불교, 도교 등의 동양종교 및 이런 성향의 대용종교(instant religion)에 더 큰 호감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의 사회조사에서 여러 차례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한국 사람들의 불

66) 박일영 외, 앞의 책(2004b) 참조.

67) 《국민일보》, 2001년 5월 14일자 참조.

교에 대한 호감도가 가톨릭이나 개신교를 능가하고 있는 데에서도 실증적으로 확인된다.

셋째, 종교의 사역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공동체와 규범을 강조하는 전통 제도종교 보다는 부담감이 덜한 ‘보이지 않는 종교’(invisible religion)나 요가, 뉴 에이지 등에 더 큰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21세기가 ‘영성의 시대’가 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기성 종교에게 기회로만 작용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오산이다. 특히 가톨릭을 포함한 그리스도교에는 오히려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미 영성에 대한 목마름에 부응하여 여러 전통이나 사상에 뿌리를 둔 다양한 대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미 이러한 사조가 구태의연한 제도종교들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21세기 한국인들의 의식구조를 읽을 수 있다. 종래에 시키는 대로 순종하기만 했던 전통적인 생활인들의 심성에는 제도종교의 메카니즘이 잘 통하였다.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존의 종교 행태를 답답해 할 수 밖에 없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 한껏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능동적이고 창의적이며 독립적인 품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인철, 박문수, 박영대, 《가톨릭신자의 종교의식과 신앙생활》, 가톨릭신문사, 2002.
- 교황 바오로 6세, 이종홍 역, 《현대의 복음선교》(Evangeli Nuntiandi),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5.
- 그레이슨, 제임스 헌틀리, 강돈구 역, 《한국종교사》, 민족사, 1989.
- 근·현대 한국 가톨릭연구단, 《한국 근·현대 100년 속의 가톨릭교회 1》, 가톨릭출판사, 2003.
- 길희성, 《포스트모던 사회와 열린 종교》, 민음사, 1994.
- 노길명, 《한국의 신흥종교》, 가톨릭신문사, 1988.
- 류동식, 《한국종교와 기독교》, 대한기독교서회, 1965.
- 필러, F. 막스, 김구산 역, 《종교학 입문》, 동문선, 1995.
- 박무익 외,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한국갤럽, 1984/1989/1998.
- 박일영, 《한국 무교의 이해》, 종교학총서 9, 왜관: 분도출판사, 1999.
- 박일영, 《한국 무교와 그리스도교》, 아시아신학총서 10, 왜관: 분도출판사, 2003a.
- 박일영 외, 《한국 천주교와 한국 근·현대의 사회-문화적 변동 01. 전문가 의견조사보

- 고서》, 한울출판사, 2004a.
- 박일영 외, 《한국 천주교와 한국 근·현대의 사회-문화적 변동 02. 근·현대 100년 속의 가톨릭교회에 대한 일반국민 의식조사보고서》, 가톨릭출판사, 2004b.
-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개정판: 2002(초판: 1969).
- 윤이흠, 《한국종교연구》, 제2권, 집문당, 1989.
- 이순성, 《제삼천년기의 한국천주교회상》, 가톨릭출판사, 1998.
- 정진홍, 《종교문화의 인식과 해석》,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 차옥승, 《한국인의 종교경험. 무교》, 서광사, 1997.
- 차옥승, 《한국인의 종교경험. 천도교·대종교》, 서광사, 2000.
- 차옥승, 《한국인의 종교경험. 원불교·증산교》, 서광사, 2003.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한국 천주교회의 위상 - 70년대 정의구현활동에 대한 종합과 평가》, 왜관: 분도출판사. 1985.
- 최석우신부 수품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편, 《민족사와 교회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b.
- 파넬베르크, 볼프하르트, 박일영 역, 《인간학》, I/II/III, 왜관: 분도출판사, 1996.
- 프리들리, 리카르트, 박일영 역, 《현대의 선교. 선교인가 반(反)선교인가》, 신학선서 10, 성바오로출판사, 1989.
- 한국사목연구소 편, 《한국천주교회사의 성찰과 전망 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0.
- 한국사목연구소 편, 《한국천주교회사의 성찰과 전망 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1.
- 통계청, 《인구 주택 총 조사 보고서》, 통계청, 2001/2004.
- 한국종교연구회, 《종교 다시 읽기》, 청년사, 1999.
- 한국종교학회 편, 《해방 후 50년 한국종교연구사》, 도서출판 창, 1997.
- 《한국 천주교 총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
- 한미준/한국갤럽, 《한국 개신교인의 교회활동 및 신앙의식》, 두란노, 1999.
- 한신대학교 학술원 신학연구소, 《한국 개신교와 한국 근현대의 사회·문화적 변동》, 한울 아카데미, 2003.
- Park, Il-young et al., Religion in Korea, Seoul: Ministry of Culture & Tourism, 2003.
- Peter Berger, Sacred Canopy, 이양하 역, 《종교와 사회》, 종로서적, 1980.
- Smith, Wilfred Cantwell, Towards A World Theology. Faith and the Comparative History of Relig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1.
- Sörensen, Henrik H., Religions in Traditional Korea, Copenhagen: The Seminar for Buddhist Studies, 1995.

2. 학술 논문

- 김중서, 〈종교 집단 간의 상호이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철학·종교 사상의 제 문제》 제V권, 1989.

- 류동식, 〈한국인의 종교심성과 기독교 이해〉,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목》 제93호, 1984, 41-63쪽.
- 박일영, 〈종교 간의 갈등과 대화. 무속과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종교신학연구》 제2호, 1989, 99-124쪽.
- 박일영, 〈그리스도교에서 본 무속신앙〉, 《종교신학연구》 제7호, 1994, 111-141쪽.
- 박일영, 〈현대 교황청 문헌의 선교 이해〉, 대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현대사상연구》 제6호, 1995b, 1-29쪽.
- 박일영, 〈무교와 그리스도신앙〉, 한국문화신학회 편, 《한국종교문화와 그리스도》, 한들, 1996b, 203-233쪽.
- 박일영, 〈무교적 심성에 비추어 본 가톨릭교회의 한국화 전망〉, 우리사상연구소 편, 《한국 가톨릭 어디로 갈 것인가?》, 서광사, 1997b, 154-179쪽.
- 박일영, 〈한국천주교회의 토착화운동〉,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천주교회사의 성찰 - 최석우신부 수품 50주년 기념논총 2》, 2000a, 1079-1101쪽.
- 박일영, 〈무교적 종교성의 구조와 특징〉 한국무속학회, 《한국무속학》 제2호, 2000b, 65-87쪽.
- 박일영, 〈다종교문화의 전통과 현실 속에서의 복음화〉,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국 그리스도사상》 제8호, 2001, 191-218쪽.
- 박일영, 〈현대 한국종교의 영성수련에 대한 고찰〉,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제14호, 2002, 117-136쪽.
- 박찬식, 〈한말 천주교와 토착문화의 갈등 - 1901년 제주교안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29호, 2001, 67-100쪽.
- 정진홍, 〈종교문화의 만남: 한국의 종교문화와 그리스도교 문화와의 만남을 서술하기 위한 시론〉, 한국신학연구소, 《신학사상》, 1986/봄, 5-24쪽.
- 최준식, 〈증산의 가르침에 나타나는 혼합주의의 구조〉, 서강대학교, 《종교신학연구》 제2호, 1989, 29-47쪽.
- Friedli, Richard, "Interkulturelle Theologie", Handwörterbuch missionswissenschaftlicher Grundbegriffe, Düsseldorf, 1989.
- Park, Il-young, "Dynamic Religiosity. Insights from Korean Folk-Religion", Pilgrims in Dialogue, Bangalore/India: Journal of Dharma, 2000, pp. 381-400.
- Park, Il-young, "The Role of Korean Shamanism for Peace Realization. From the Viewpoint of Inter-Religious Dialogue and Cooperation", The 7th Conference of International Society for Shamanistic Research, Changchun/China, Aug. 2004.

3. 기타 자료

《국민일보》, 2001년 5월 14일자

《조선일보》, 1994년 7월 24일자.

International Theological Commission, "Memory and Reconciliation: The Church and the Faults of the Past", <http://www.cbck.or.kr/cbck/pds>, 2000년 3월 7일.

원고접수: 10월 11일 1차심사: 11월 8일 게재승인일: 12월 3일

연구자 소개

- ① 전공: 종교학 / 소속: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성대학원장 겸 종교학과 교수
 - ② 관심영역: 비교종교학, 샤머니즘, 한국종교와 그리스도교
 - ③ 주요논저: 《한국무교의 이해》, 《한국 무교와 그리스도교》, 《Pilgrims in dialogue》
 - ④ E-mail: onezero@catholic.ac.kr
-

A Study on the Religious Perception about Catholicism by common people in Korea

Park, Il-You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larify whether the Catholic church of Korea has become one of the genuine religions of Korean people. The target of the research is the common people of Korea, among them catholics including. The backgrounds of the research are following: Firstly, we hope that the Catholic church becomes one of the genuine religions of Korea. Secondly, we hope that Koreans realize mutual respect and deep understanding in a multi-religious society. Thirdly, we hope that Korean religions establish constructive co-existence and cooperation.

To do this kind of research I try to use following methods. The research contents are the analysis of religious perception about Catholicism by common people in Korea. Anyhow I limit the boundary of the research in recently made social surveys on the topic of Korean religions, including catholics and non-catholics. So I would like to show various facets of Catholic church in Korea, as the result of profound investigation.

We can expect from this kind of research to get useful information for the sake of introspection about past times, examination of the present days and vision gaining for the bright future. For the concerned scholars we can provide good knowledge for correct understanding about catholicism in Korea as it is. Inside church itself, I suppose it will be helpful to set up the pastoral master-plan. In the national dimension, this study gives worthy and objective data for better understanding about catholic church in the religiously pluralistic society.

Key words: reality of Korean catholicism, common people's evaluation, religious perception, questionnaire, mission of the religious education.